



제12호

2009년 7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발행인 최순삼/편집인 김진성/발행일 2009년 7월 6일 / 560-837 /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56-8(3층) / ☎ 063) 905-0218 (fax 227-0650)

>>> 더불어 사는 기쁨 함께 여는 통일 세상 >>>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소식

<http://blue21.or.kr>

마을에서 살고 싶었다

김영춘(슬내고등학교 교사)

이 집 걱정 저 집 걱정
환히 알아채며
울타리 너머로 늙어가고 싶었지만
그걸 내내 못해내며 살았다

씻줄이라도 쓴다는 자가
나 혼자 먹고 살다가 죽고 말
도회지의 살림살이 하날 못 떨구고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대통령이나 지낸 사람은
짐 보따리를 싸자마자 마을로 돌아와 버렸다
옛날 이야기처럼 집을 짓고 살았다

오리농사 지을 때
오리네 집 문은 아침에 누가 열어 줄 거냐고
동네사람들과 옥신각신하며 살았다

좀 오래 살 것이지 우리 곁을 금방 떠나버렸다

마을에서 사는 일을 우습게 아는
세상과 사람들이 그를 일찌감치 죽게 했다
원망하지 말라며 죽었다
원망하지 말라며 죽었다

가신 양반의 말씀처럼
삶과 죽음은 같은 조각이라서
사람은 떠나고 사람들은 남아
길을 걸을 때마다 제 설움으로 물결 되어 운다

그를 죽인 세상과 함께 숨 쉬며 살며
철렁
모르던 일들을 깨닫게 한다

돌아가야 할 마을은 아직도 저만치에 있는데

【시상(詩想)】

마을에 돌아와 살다 떠난 대통령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그 양반 일거라는 생각을 해 본다.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는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다. 혹시 마을로 돌아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함께 먹고 자고 심고 키우려고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테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곁에 두고 함께 살아간 행운과, 생각할 시간도 없이 떠나보낸 울분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다.

참 대단한 분이다. 어떻게 한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했을까? 도도한 돈의 흐름을 따라 걸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인간의 목소리로 엉엉 소리 내어 울어 버리지 않았는가? 내 것을 모두 내던지는 죽음으로 세상을 보듬어 안은 그분의 삶 앞에 나는 지금 서있다.

시에 대한 마음을 접은 지 참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 보잘 것 없는 몇 줄을 적는다. 견딜 수 없이 솟아오르는 마음을 한 시대의 이름으로 그 분께 드리기 위해서이다.

그걸 내내 못해내며 살았다

목차

- | | |
|---------------------------------|---|
| 002 권두시 / 마을에서 살고 싶었다 | 014 저소득층 학생, 독서량과 문화체험 부족으로 성적 하락,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
| 003 인사말 최순삼 | 기획/특집2 |
| 입시경쟁 교육 강화로 미래 교육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 016 교육정책세미나 지상중계 /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교육 대안 |
| 이곳에서는 | 018 교육서평 / 의사소통,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 |
| 004 농촌체험교실 운영 | 020 문화다시보기 / 나비! 자유로운 영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
|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독서교실 등 열려 | 022 이곳에서는 |
| 005 통일문화교실 진행 / 교육정책세미나 열려 | 독서교실 상반기 결산 /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다채롭게 진행 |
| 006 배드민턴 대회, 천선 배구대회 | 024 복년 어린이 공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
|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 | 025 조경희 선생님이 들려주는 들꽃이야기 |
| 007 노무현 前대통령 묘역(김해 봉화마을) 참배객 모집 | 026 투고 / MB정부 정책 및 교육정책 관련 / 기억은 우리의 최대 무기 |
| 008 '희망의 인문학' 성공회대 고병현 교수 초청강연 | 028 생태만화 / 꼬마 애벌레 말강이 |
| 기획/특집 1 | 030 회원동정 |
| 010 '희망 2009, 제9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 031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CI 의미 |
| 기획/특집 1 | |
| 012 교육정책세미나 지상중계 | |

입시경쟁 교육 강화로 미래 교육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가?



최순삼
(원장, 복흥중교사)

이명박 정부와 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묻고 싶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입시경쟁교육, 문제풀이식 교육, 방과후 보충수업 및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강화하면, 개인도, 학교도, 국가도 21세기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는가? 아이들에게 배움과 지혜의 능력인 진정한 학력(學力)이 생기는가?

3월 새학기가 시작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학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009년 1학기 동안 사회도, 학교도 참 많이 변하고, 교사도 학생도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 이후,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후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의 남발, 각종 정책들이 일반 서민들의 이익보다는 많이 가진 사람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는 교육계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입시교육이나 사교육비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어서 모든 것이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명박 정부가 쏟아내는 교육정책 들 - 학교자율화 대책, 자율형사립고, 일제고사, 학교간 성적 공개, 수능성적 공개, 영어교육 강화 등 - 이 교육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까지도 문제풀이에 매달리고, 방과후수업이라는 이름으로 중학교까지 보충수업이 확대되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늘어나고, 개인간 학교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그렇잖아도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네 학생들의 삶이 더욱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을 통한 계층 고착화, 귀족학교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꾀차하게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밀어붙이고, 공공성보다는 경쟁위주의 교육정책 속에서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교육양극화,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도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도 학력신장 중심의 예산 퍼붓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뜰이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으로 입시교육이 강화된 상황에서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은 발붙일 틈도 없고, 입시경쟁교육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교육청이나 지자체가 예산을 더 많이 교육에 지원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과의 토론과 논의 통해 학교 현실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문화적 감수성, 의사소통 능력, 사고력 등 전인적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야 함에도 오로지 학력신장에 매달립니다. 선생님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와 도교육청, 지자체 등에 묻고 싶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의 아이들에게 입시경쟁교육, 문제풀이식 교육, 방과후 보충수업 및 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을 강화하면, 개인도, 학교도, 국가도 21세기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는 있는가? 아이들에게 배움과 지혜의 능력인 진정한 학력(學力)이 생기는가?

며칠전 열린 초청강연에서 고병헌 성공회대 교수가 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교사, 학부모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어려운 이 시기에 그래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보다 나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가족들이 있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됩니다. 교육가족들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

농촌체험교실 운영



농촌 어린이에 대한 교육기회 및 체험활동 확대, 농촌체험학습의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농촌체험교실이 “전북농촌교육연구회”와 “(사)지역농업연구원”의 협력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월 완주 고산면에서 딸기따기 체험행사를 가진 데 이어, 6월 13 일에는 부안 후촌갈대마을에서 오디따기 체험학습을 실시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오디따기 뿐만 아니라, 오디주스 담그기, 전통 놀이 체험, 오디 삼각김밥 만들기 등의 체험을 하였다. 체험마차를 타고 오디를 따기도 하고, 먹기도 하면서 알찬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농촌체험교실을 주관하고 있는 송승용 교사(전북농촌교육연구회 사무국장, 원평초 교사)는 “요즘 농촌 아이들이 농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요. 도시로 떠나려고만 하죠! 그런데 농촌은 미래사회에서도 중요한 공간입니다. 농촌에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이를 통해 농촌에 대한 자부심뿐만 아니라 경제적 마인드도 가질 수 있도록 해주고 싶습니다”라고 그 의의를 말한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낙농체험, 동상꽃감체험, 야채재배 체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그동안의 체험과 함께 다양한 농촌체험학습 정보를 수집하여 농촌체험학습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집을 펴낼 예정이다.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독서교실 등 열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초등 책읽기 모임 “읽고살고”,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와 함께 교육소의 계층에게 학습, 인지, 인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독서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2009년 상반기에도 어린이/청소년 독서교실, 12개교 학교독서문화교실 등을 월 1회 이상 꾸준히 진행하였다. 어린이 독서교실은 지난 5월 9일(토)를 시작으로 월 1회, 청소년 독서교실은 3월 28일 시작으로 월 1회 본원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 단위에서 진행되는 학교독서교실은 토요일무일 등을 이용해 초등 6개교, 중등 6개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여름방학에는 어린이/청소년 독서캠프와 4개교의 여름 학교독서캠프가 예정되어 있다. (관련기사 면 22~23 면)



통일문화교실 진행

생활 속에서 청소년들이 평화의 소중함과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기 위해 통일교실이 운영되고 있다. 이미영 본원 이사장이 지도 교사로 직접 참여하여 전주공고에서 통일교실을 열고 있다. 전주공고 통일교실은 지난 5월 전주공고 학교 축제를 맞아 “통일다행시 짓기 코너”를 마련하여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행사를 가졌다.

전주공고 통일 동아리는 『제9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노래가사바꿔부르기 대회에 참여하여 전라북도교육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교육소의 계층 교육대책 마련 위한 교육정책세미나 열려

5. 27 전북대 진수당, 교육정책 제안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사)교육종합연구소, 지역복지자원개발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5월 27일(수) 오후 5시에 전북대학교 진수당 바오로홀에서 전북 교육소의 청소년 실태 및 교육 대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북 교육복지 사업의 방향과 교육 소의 청소년들의 교육 소의 실태와 그 교육 대안을 탐색하는 교육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2009 교육정책세미나는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교육 소의 계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전북지역의 농산어촌 및 도시지역 소의 청소년, 다문화가정 자녀 등 교육소의 계층 아동/청소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극복할 교육정책적 대안 및 전북 교육복지 사업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최순삼 본원 원장(순창북홍중)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1. 전북 교육복지 사업 진단과 교육복지의 방향 - 이혜숙 교수(한일장신대) 2. 이명박정부의 교육정책과 농촌 소외청소년의 진로 - 노상우 교수(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3. 전주지역 저소득층 청소년의 교육 소의 실태와 대책 - 최선호 실장(본원 정책실장), 4.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교육 대안 - 천호성 교수(전주교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2009 교육정책 세미나에 논의된 교육복지사업의 방향, 농산어촌 청소년 교육 대책, 도시 저소득층 교육 대책,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대책내용을 정리하여, 이후 전라북도교육청에 교육소의 계층 교육 대책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14면 ~ 17면)



제1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 친선 배구대회 성황리에 마쳐



지난 5월 16일 토요일 오후, 전주서문초등학교 강당에서 제1회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와 초·중등 회원 친선 배구대회가 12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에서는 배드민턴 대회를 치르고 2부에서는 초·중등 회원 간 배구대회로 진행되었으며,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참가자들의 재미를 더해 주었다. 이번 제1회 이사장배 배드민턴 대회는 그동안 같은 청소년교육문화원 회원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어울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임동연 회원은 조직위원장을 맡아 행사 기획 단계에서부터 진행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았으며, 이미영 본원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건강증진을 위한 이러한 행사는 매우 뜻있는 행사이며 청소년교육문화원회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행사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행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성적은 남자복식 1위에 고재근/김상식 팀이 차지했고, 여자복식 1위는 강유신/한영희 팀이, 혼합 복식 1위는 엄정영/심정미 팀이, 초급 복식 1위는 김찬영/강유희 팀이 각각 차지했다. 한편, 행사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했고, 초중등교사들 간의 우의를 다질 수 있었던 친선배구에서는 3세트 상황까지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초등 팀이 2:1로 승리를 거두었다. 승패를 떠나 서로를 한마음으로 응원하며 어우러지는 자리였다.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 마무리



고전을 통해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고자 시작된 “교사를 위한 재미있는 논어교실”이 10여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본원 교육실에서 진행되었다.

3월 30일 ‘學問’이라는 주제로 시작된 논어교실은 7월 6일 “역사적 맥락과 정치”를 주제를 마지막으로 총 8차에 걸쳐 2주 1회 간격으로 열려 왔다.

논어교실을 운영해온 문채병 선생님(전주생명과학고)은 논어교실을 연 배경에 대해 “동양의 위대한 성인이자 교육자인 공자의 언행을 기록한 논어는 2천 5백년의 세월을 넘어 현재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사들의 삶의 화두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교사에게는 아주 이상적인 修身敎養書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한다.

노무현 前대통령 분향소에 도내 교사, 학생, 시민들 조문 줄이어

7월 11일(토) 김해 봉화마을 묘역 참배

지난 5월 23일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 땅에 “민주주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 “사람사는 세상”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화두를 남기시고 서거하셨다. 이를 추모하는 국민장 기간에 문화원 회원을 비롯한 많은 교사, 학생, 시민들이 “전주 오거리 문화광장 시민분향소”를 비롯해 도내 분향소를 찾아 조문을 하였다.

지난 5월 24일 이미영 본원 이사장이 “전주 오거리 시민분향소”에 조문한 데 이어, 5월 25일에는 문화원 회원들이 단체로 조문을 하였다. 또한 본원 자문위원인 안도현 시인(우석대 교수)는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노제에서 조시를 낭송하기도 하였다.

한편 시민분향소에는 단체로 조문을 온 유치원생에서부터 부모와 함께 조문을 온 학생들, 야간자율학습 시작 전 저녁 시간을 이용해 단체로 조문하는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들이 줄을 이어 고인을 추모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그 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였다.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에서는 고인의 뜻을 마음에 담고자 7월 11일(토)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 명이 김해 봉화마을을 방문하여 노무현 전대통령 묘소 및 작은 비석에 참배하였다.

봉화마을은 우리가 방문하기 하루 전날인 7월 10일 49재에 노무현 전대통령 안장식이 거행되어서, 작은 묘역이 마련되어 있었다. 묘역은 당신의 유언대로, 당신의 삶대로 큰 덮개들에 “대통령노무현”이라는 아주 작은 글씨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라는 받침돌만으로 정말 소박하게 조성되어 있었다.

게 조성되어 있었다.

참배 일행은 가지러운 마음으로, 그 뜻과 의지를 마음에 담으며 묘역에 참배하였다. 참배를 마친 많은 사람들은 덮개들을 쓸어안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열심히 살게요” “민주주의 꼭 이룰게요”라며 다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부엉이바위에, 정토사에 오르며, 노무현 전대통령이 이루고자 했던 그 정신을 마음에 새겼다.

49재 이후 첫 주말을 맞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봉화마을을 참배하고 있었다. 봉화마을은 이제 광주 망월동 묘역과 같은 민주주의 성지로 거듭나고 있었다.

참배객 일행은 전주로 돌아오면서 묘지에 새겨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희망의 인문학”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 초청강연

- 교사로서의 삶과 가치에 대한 자각

급격한 사회 변화, 민주주의 후퇴, 경쟁이 강화되는 교육 현실 등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기에 인문학적 자각으로 단단히 우리 자신을 내면화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문화원에서 마련하였다.

6월 23일(화) 본원 교육실에서 ‘인간으로서의 삶과 가치에 대한 자각’ 사유하는 교사’ 등을 주제로 성공회대 고병헌 교수의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열었다.

고병헌 교수는 미국에서 시작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인문학’인 클레멘트 코스를 한국에서 실천하고 있는 교육이론가이자 실천가이다. 고병헌 교수는 이날 강연에서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 현실 교육에서 중요한 것, 교육과 인문학 등의 내용으로 4시간 가까이 열띤 강연을 펼쳤다.



‘교육’은 기술(skill)이 아니라, 삶의 가치다.

고병헌 교수는 ‘교육’이라는 말에는 어떤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고 말한다. “원래 교육에는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 단지 객관적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니다. 교육과정, 교사가 가르치는 내용, 가르치는 방법에도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다. 그 가치는 삶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의식에서 생겨난다고 말한다. 즉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인문학적 물음으로부터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은 단지 지식 전달이나 가르치는 기술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의 삶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삶을 위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삶의 가치, 삶의 진실성을 배운다.

또한 고병헌 교수는 삶을 위한 교육에서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가르치는 사람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교사들의 교과지식보다는 교사의 삶의 가치, 삶의 진실성을 배우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단순히 입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 교사는 머리로 깨달은 것을 가슴에서 숙성시켜, 몸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새로운 삶의 가치에 대해 교사인 나부터 절실히 해야 하며, 나의 삶을 실어서 가르쳐야 한다”. 그는 교사에게 삶의 진실성과 절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산업시대의 교육 경험으로 미래세대를 교육해서는 안 된다.

현재의 교육에 대해 고병헌 교수는 산업시대의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가 미래의 지식정보화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그 경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지금의 교육 관점으로는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쟁력있는 교육도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교사, 교육정책 결정자 등 기성세대들은 산업화시대의 경험 속에서 산 세대이다. 산업사회는 소품종대량 생산의 시대로 중요한 것이 숙련성, 전문성이었다. 똑같은 작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 속에서 숙련성이 높아진 시대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성적, 學歷(학벌) 등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중요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살아갈 지식정보화시대는 숙련성, 전문성보다는 창의성, 상상력, 통찰력, 감각, 감수성 등이 더욱 중요한 시대이다. 이러한 가치가 현대 경영,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교육이 경쟁력을 추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현재의 한국의 입시교육, 경쟁교육, 산업시대의 교육 방식으로는 인간성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또한 그는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경제 발전도 철학이나 인문학적 성찰이 없는 곳에서는 이룰 수 없다고 말한다. 그는 “철학, 인문학이 발전되지 않는 곳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할 수는 없다”는 외국 학자의 말을 인용해, 인간성 회복,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인문학적 사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꿈은 현실을 목표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

또한 그는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꿈, 학생들의 꿈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꿈이 중요하다. 꿈은 현실을 목표에 이르게 하는 힘이다.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힘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바로 꿈이다. 교사인 내가 꿈을 꾸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꿈을 꾸도록 해야 한다.” 교육은 아이들에게 꿈을 꾸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 스스로 행복해야 학생들도 행복하다.

마지막으로 고병헌 교수는 “교사 스스로, 부모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아이들도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강조하며 6시 40분에 시작된 강연은 4시간 가까운 10시 30분이 되어야 끝을 맺었다. 이날 초청강연회는 교사로서, 부모로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의 이유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뿌리가 되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었다.



고병헌 교수는 “교사 스스로, 부모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아이들도 학생들도 행복하다”고 강조하며 6시 40분에 시작된 강연은 4시간 가까운 10시 30분이 되어야 끝을 맺었다.



아홉 돌 맞은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가장 궁극적인 안보를 위해서 더욱더 절실한 통일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올해로 아홉 돌을 맞이하는 「희망 2009, 제9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이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국립전주박물관 일원에서 1,000여명의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그간 토요일 오후에 실시해왔던 것과 달리 쉬는 토요일 오전에 행사가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른 아침부터 많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행사장을 찾아줘 고즈넉한 박물관을 통일에 대한 염원으로 술렁이게 했다.

이명박 정부 2년차에 이르러 각종 통일기원 및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대북정책의 위기 속에서 그 의미가 더욱더 값진 행사로 치러졌다. 남과 북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한마당 잔치를 펼칠 그날을 기원하면서, 지난 행사의 이모저모를 돌아본다.

도내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 중·고등학생들은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에서 10개팀이 참여한 가운데 통일노래가사바꾸기대회를 열었고, 중등 글쓰기대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박물관 앞 뜰에서 통일의 마음을 담아 글쓰기를 하였다. 그리고 초·중·고등학생들은 체험관 앞 소나무 숲 주변을 본부로 하고, 박물관 야외 공간 일대에서 통일을 주제로 그리기와 글쓰기대회를 실시했다. 주제를 통해서 북한의 친구에게 꼭 주고 싶은 것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해보게 했으며 내가 생각하는 통일을 표현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최근 일시적으로 경색되고 있는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앞으로 통일시대를 살아갈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민족의 동질성을 느끼게 하고 통일대비 교육을 절박하게 실시해야 되는 시점에서 어린이·청소년들에게 북한 동포에 대한 포용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다.



「희망 2009, 제9회 전북청소년통일한마당」 소식

통일한마당 행사 이모저모



초등 그림그리기 수상작



◀전주서천초등학교 3 최지호

전주평화초등학교 6 박소을▶

▼전주효림초등학교 3 설가현



초등 글쓰기 수상작

북한 친구들과의 음악줄넘기

정시은(전주여울초 4년)

“부릉~ 부릉~” “부릉~ 부릉~”

“애들아, 빨리 와~ 늦었어!”

우리는 여울초등학교의 음악 줄넘기 팀. 지금 북한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에 올랐다. 키가 작은 나는 줄넘기를 하면 키가 큰다는 엄마의 말씀에 학교 계발활동으로 음악 줄넘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지금까지 해오던 줄넘기가 아니어서 너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숨도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도 아프고 팔까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몇 달 동안 열심히 연습하여 우리학교 음악 줄넘기 팀이 지난달에 있었던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했을 때의 기분이란……. 너무 행복하고 짜릿했다. 그리고 우리는 전국대회 우승팀으로써 북한 친구들에게 음악 줄넘기를 소개하고 가르쳐 주기 위해 북한에 가는 길이다.

북한 친구들은 음악 줄넘기라는 것을 알까? 얼마 전 북한 아이들은 우리들과 다른 놀이를 하는 줄 알았는데 우표에서 본 아이들은 팽이치기, 팔씨름, 태권도 그리고 줄넘기까지 하고 있었다. 그것을 보고 북한 아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게다가 줄넘기 까지 하고 있으니 우리가 알려 줄 음악 줄넘기도 어찌면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우리의 실력을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어서 북한에 도착해 북한 친구들을 만나고 싶다. 그리고 신나는 음악에 맞춰 우리의 숨씨를 뽐내고, 그 친구들에게 어서 빨리 음악 줄넘기를 알려 주고 싶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대회에는 북한 친구들과 한 팀을 이루어 꼭 우승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나만의 꿈일지도 모르는 이 이야기가 언젠가는 현실이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우리 친구들, 북한 친구들 아자! 아자! 화이팅~”

중등 글쓰기 부분 최우수상(운문)

다시 시작할 그 순환

이일여고 3학년 2반 박가영

나무가 무성한 그 숲에 봄이 다가온다.
숲은 어우러져 소리를 내는 듯
앞사귀로 햇빛을 받아낸다.

그 햇빛을 따라 곤충들이 이동하기 시작한다.
먹이를 나르는 개미, 노래를 부르는 새
꿀을 옮기는 벌, 꽃가루를 날리는 꽃
자기 안의 것들을 부드럽게 감싸는 그 숲

불현듯, 6월, 그 6월의 폭풍과 홍수가
그것들을 흔들어 놓는다.
고독과 적막만이 그들을 포용한다.

문득, 한빛이 이 안에 샘솟고,
그 빛이 그들을 감싸는데,
한 줄기 빛은 너무도 희미해, 그 숲은 모르는 듯하여
봄기운이 그들을 품지만
그 숲은 무엇이 그리 서글픈지 잎들을 펼치고
뿌리를 뻗어서 그 안의 어둠만을 남긴다.

소멸되는 빛, 까매지는 꽃, 갈 곳이 없는 벌, 모여드는 개미
자기들 안에만 갇혀 서를 볼 수 없는 존재들

그 사이 빛은 강해지고
폭풍은 더 심해지는데
그 숲은 무엇이 그리 서글픈지
빛을 힘들게만, 괴롭게만 밀어낸다.

6월은 오고, 다시 도 오고, 해마다 오는데
그 숲은... 그 숲은 ... 그 안의 것은 소멸시킬 뿐이다.

그 사이 빛은 더 강해지고
폭풍은 더 심해지는데

그 숲이 눈을 뜨고 그 앞사귀를 걷어내어
서를 볼 수 있다면
그 빛을 볼 수 있다면...

그 예전의 그 순환을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 폭풍을 건널 수 있지 않을까
다시 소생할 수 있지 않을까

저소득층 학생, 독서량과 문화체험 부족으로 성적 하락, 심리·정서적 문제 발생

- 전주 초·중학교 저소득/일반 학생 비교 설문조사에서 밝혀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도시지역 교육소의 계층의 실태 파악과 교육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 5월 6일부터 5월 15일까지 10일간 전주시내 초·중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저소득층과 일반학생의 독서량,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를 비교하고자 초등학교와 중학생 200명씩 총 400명(저소득층 200명, 일반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저소득 여부, 독서량,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가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적, 인지능력, 자존감과 산만, 우울 등의 심리 정서적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최선호
(본원 정책실장, 완주중 교사)

저소득층 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독서량과 문화체험 횟수 현저히 적어

학생이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독서량과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가 적었으며, 일반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학생에 비해 독서량과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의 경우 47%(84명)의 학생이 1달에 2권 이하의 책을 읽는다고 답한 반면, 8권 이상을 읽는다고 답한 경우는 19%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반학생은 2권 이하의 책을 읽는다고 답변한 경우는 20%였지만, 8권 이상을 읽는다고 답변한 학생은 42.5%나 되었다.

또한 최근 6개월간 가족과의 문화체험 참가 횟수에서도 저소득층 학생과 일반학생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2회 이하가 73%에 달했고, 5회 이상을 갔다고 답한 비율은 7%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일반학생은 2회 이하가 24%, 5회 이상이 46.5%에 달했다.

교육소의 문제는 단지 경제적 인 문제만이 아니다. 저소득 여부에 따라 독서량, 문화체험 횟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 성적,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자존감, 사회성, 산만,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저소득, 독서량, 가족과의 문화체험 횟수, 학업 성적 및 심리 정서적 영향 미쳐

저소득층의 학생들이 일반가정의 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과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리정서적인 부분에서는 공격성이나 산만함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조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독서량은 학교생활, 대인관계, 성적, 자존감 등의 심리정서 등에 영향을 준다. 독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성적과 인지능력이 좋았으며, 대인관계, 자존감, 자기관리 능력이 높았으며, 가족관계도 좋았다. 또한 독서량이 증가함에 따라 공격성, 반항, 불안, 우울 등의 지수가 낮게 나타나, 독서량이 심리 정서적 요인과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가족과의 문화체험 참여 횟수는 학교생활, 대인관계, 성적, 인지, 자존감 및 자기관리, 산만, 반항, 우울 등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다만 공격성과 불안 요인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가족과의 문화체험 참여 횟수에 따라 학교생활, 성적, 사회성,

구분		저소득		일반	
		빈도(명)	유효 퍼센트(%)	빈도(명)	유효 퍼센트(%)
학교	초등	100	50.0	100	50.0
	중학교	100	50.0	100	50.0
1개월 독서량	없다	28	14.0	8	4.0
	1-2	66	33.0	32	16.0
	3-4	53	26.5	42	21.0
	5-7	15	7.5	33	16.5
	8이상	38	19.0	85	42.5
6개월 문화체험 횟수	없다	69	34.5	10	5.0
	1-2	77	38.5	38	19.0
	3-4	40	20.0	59	29.5
	5-7	10	5.0	39	19.5
	8이상	4	2.0	54	27.0

심리정서적 요인 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저소득층 학생은 독서량과 문화체험 참여 횟수가 많지 않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학교생활, 성적, 인지능력, 다양한 심리정서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라북도 자체가 대한민국 전체 차원에서보면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학업성적 향상, 심리정서적 지원, 문화적 지원 등을 해 나가는 것은 교육 소외 극복을 위해 필요하다.

물질적 지원을 넘어 독서, 문화 등 종합적 지원 대책 마련해야

물질적 경제적 지원에 한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교육소외 계층 지원 사업이 학력 증진, 기초 학습부진 대책 등 주로 학력 증진에 맞춰져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것처럼 교육소외 문제는 단지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저소득 여부에 따라 독서량, 문화체험 횟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고, 이는 다시 학교생활, 성적, 인지능력 뿐만 아니라, 자존감, 사회성, 산만, 우울 등 심리정서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독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지역적 소외를 겪고 있는 전북의 일반 학생들도 마찬가지이다.

상담교사, 지역사회전문가, 사서교사의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특히 교육소외 계층 학생이 100명 이상으로 많음에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로 선정되지 않는 학교에 먼저 배치해야 한다. 그동안 전라북도교육청은 교복투학교나 돌봄학교 등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되는 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전문가, 사서교사 등을 채용하였다. 그러나 전라북도교육청 자체적인 예산으로 교육소외 계층이 많은 학교에 거의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학교들은 교복투 학교에 선정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태다.

또한 지역이 급격하게 도시지역의 과밀화, 농촌지역의 과소화 되면서 지역의 공동체성이 붕괴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의 교육력도 약화되고 있다. 이는 도시나 농촌이나 가리지 않고 나타나는 사회 전반의 위기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개별 가정의 교육적 지지가 현저하게 약화되는 빈곤 지역의 경우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현저하다. 따라서 빈곤 지역의 아동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발달· 학습지원네트워크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다문화가정 자녀의 실태와 교육 대안

- 초등학교 인권교육을 중심으로 -



천호성
(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학습부진이나 정체성확립, 적응교육에 대한 초점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교육으로 대상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다양성의 이해와 타문화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최근 “다문화”라는 말은 우리사회 여기저기에서 트렌드(trend)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제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은 우리들의 삶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가 많은 분야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사회가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사회” 혹은 “다문화교육”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야기하게 될 때, 내게는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건 하나가 있다. 바로 2007년 미국 버지니아 공대 조승희 군의 무차별 총기난사 사건이다.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은 이 사건은 급속하게 다문화사회에 접어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다가온 다문화사회는 이민자들의 사회에 대한 적응, 자녀교육, 이해와 공존, 인권 등 현재 우리에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많은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우리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갈등과 잡음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다문화사회 안에서 구성원끼리 서로 조화를 이루며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수용하는 주변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와 인식의 전환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적, 사회적, 개인적 관점에서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일반학생들의 편견과 차별 인식 극복이 중요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구성원들에게 다문화사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이다. 교육 현장에서 다문화가정 아동들은 외모적 차이나 의사소통의 문제들로 인하여 일반 아동들로부터 편견과 차별을 받게 되고 이는 결국 학교 부적응 및 부진아 및 문제아로 전락할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교육기관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정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에 대한 일반 아동들의 편견과 차별 없는 인식이다. 이를 위해 일반 아동들이 다문화가정을 편견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 아동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에 기초하여, 개인차는 물론 인종, 민족, 종교, 성별, 사회경제적 계층, 연령, 능력, 그리고 가족생활 방식에 대해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고 및 편견에 대한 비판적인 사고를 형성하고, 다양성에 대하여 편안하고 감정이입적인 상호작용을 하며, 나아가 편견에 대항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반편견 교육이다.

한국은 이미 다민족 국가로 바뀌고 있고 급증하는 국제결혼이 이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속에서 반편견 교육은 우리 사회에서 급속하게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나아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동 인권 존중의 기본 틀 위에 다문화가



정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편견과 질서 없이 교육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이 다문화교육의 성공요인

그동안 필자가 참여하고 관찰 수업을 진행한 S초등학교의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분석 결과, 성공 요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프로그램 운영의 내용과 방법 면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나 다문화가정 구성원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구별 짓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학교만의 노력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손을 잡고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에게 자긍심을 키워주고 있다는 점이다.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 행사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의 내용과 방향을 학습부진이나 정체성확립, 적응교육에 대한 초점에 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교육으로 대상과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즉 다양성의 이해와 타문화의 이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둘째, 다문화가정 자녀 혹은 다문화가정 구성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학생들과 일반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그 대상을 넓히는 것이 요구된다. 요컨대 다문화교육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인권의 존중과 인권 의식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 가정이 안정되어야 아이들도 학교생활에서 안정이 됨으로 다문화가정 지원이 1차적으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의 안정 위에서 2차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엄마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기획과정에서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요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을 보호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교육은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다섯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관련 구성원들의 인권보장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특별한 대우나 무조건적인 은혜 베풀기 등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여섯째, 다문화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과 프로그램을 전문화시킴과 동시에, 교사들에게 다문화인식을 배양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일회성 혹은 이벤트성 행사를 자제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안목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의사소통,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

주중일(익산금마초 교사)



민주주의는 바로 교실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소중한 유산을 전해 준 존 듀이의 생각처럼 하버마스는 바로 일상적인 언어 행위에서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의사소통으로서의 폭력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고 있다. 각종 시국선언에서도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통을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의 문제는 교육에서도 나타난다.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학생과 학생 사이의 소통의 문제로 인해 ‘학교폭력’, ‘체벌’, ‘왕따’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소통’의 문제는 단지 ‘대화’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와 국민과의 소통 불능 상태는 ‘대한니우스’를 상영한다고, 시장을 방문하여 떡볶이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소통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 각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타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각각의 이성을 가진 인간과 인간이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갈 수 있을까? 이처럼 ‘소통’은 다양한 가치가 내재된 개념이다.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이론’을 철학동화로 알기 쉽게 풀어가는 책

하버마스는 이러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문제를 자기 철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성 은 투명하고 조작되지 않는 의사소통의 가능성이며 따라서 이성은 근본주의나 테러리즘, 인간소외, 민주주의의 위기와 같은 근대화의 병폐를 치료할 수 있다고 본다. 그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이성’은 어떻게 가능하며 우리 사회와 교육현장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을지에 관심이 간다.

그러나 그의 이론을 충분히 쫓아 가기는 쉽지가 않다. 체계이론, 행위이론, 보편화용론, 담론이론 등의 사회학적 이론 등을 중심으로 철학적 사유를 엮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이론을 철학동화를 통해 알기 쉽게 풀어가는 책이 있다. 바로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 시리즈로 『하버마스가 들려주는 의사소통 이야기』(문성훈 저)이다.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이야기는 1권 “플라톤이 들려주는 이데아 이야기”를 시작으로 73권째인 이 책에 이르고 있다.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철학과 논술을 묶어주는 구성이지만 철학에 대한 쉬운 접근을 원하는 성인들 특히 교사들에게는 적절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혼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타인과의 관계없이 누구도 의식적 삶을 영위할 수도, 자신의 고유한 삶을 살 수도 없다. - 하버마스-

대학병원 아동정신과 317호 입원실에는 거울을 무서워하는 향이와 남의 말만 따라하는 삼중이, 화만 내며 공격적 성향을 보이는 재중이, 그리고 진화라는 아이가 치료를 받고 있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있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치료과정에서 다양한 발견들을 통해 서서히 자신을 찾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찾아가는 이야기 전개는 동화적인 감동을 충분히 전달하고 있다.

향이는 어떤 아이일까? 다른 사람이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기 싫어한다. 그 뿐만 아니라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도 두려워 한다. 만약 향이가 그런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결국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말 것이다. 삼중이는 어떤 아이일까? 메아리처럼 다른 사람 말을 따라 하기만 한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고 원하는 바를 표현하지 못한다. 결국 향이는 들을 수도 있어야 되고 삼중이는 자기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의사소통인 것이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의사소통은 ‘의사’와 ‘소통’이라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로 ‘의사’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한다. 그리고 ‘소통’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막히지 않고 잘 통함을 뜻한다. 즉 ‘의사소통’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남에게 전달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행동을 말한다.

이 아이들은 엄마들과 함께 병원의 허락을 받아 바닷가로 놀러가게 된다. 아이들의 저녁을 준비하던 엄마들은 바베큐와 조개구이를 놓고 의견을 나눈다. 이 때 재영이는 무조건 조개구이가 싫다며 우기게 되고 결국 아이들의 논의는 깨지게 된다. 재영이는 어떤 아이일까? 재영이는 합리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고집만 피우고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타당한 이유를 들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것을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라 부른다.

자 이제 의사소통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향이와 삼중이가 자기를 왕따 시킨다고 생각하는 재영이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무조건 울어버린다. 그런 재영이를 보며 재영이 엄마도 마침내 소리를 질러버린다. 결국 의사소통에 따른 합의에 이를 수 없게 된 것이다. 하버마스는 의사소통은 ‘참이다’ (진리), ‘옳다’ (정당성 및 규범성), ‘진심이다’ (진실성)라는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본다.

미국소 수입으로 인한 촛불시위를 생각해 본다면 국민들이 바른 먹거리를 원하는 것은 참이다. 즉 진리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열지 않았다. 즉 일정한 규범성을 상실한 것이다. 또한 미국소는 안심할 수 있다는 허위 자료 등을

제시하고 미국측에 수입을 약속해 놓고 계속 거짓과 변명을 일삼았던 것은 진실성을 잃은 행위이다. 이렇게 공동체 구성원의 동의와 합의를 이끌어야 할 정부가 타당성을 잃은 행위를 하게 되어 신뢰를 잃게 되면 바로 하버마스가 우려하는 국가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의 문장은 바로 대화와 토론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하버마스의 호소이다.

비판 가능한 주장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대응할 수 있는 개인의 불가침한 자유가 없다면, 동의는 진정으로 보편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다른 한편 각자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감수성을 지니지 않는다면, 오랜 토론을 거치며 숙고해도 보편적 동의에 도달할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자율성을 지닌 상호주관적으로 공유되는 관계망의 구성원이다. 이 두 국면은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담론을 통한 결정 절차에서는 바로 이런 연결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의사소통적 행위』 중

민주주의는 바로 교실의 모습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소중한 유산을 전해 준 존 듀이의 생각처럼 하버마스는 바로 일상적인 언어 행위에서의 민주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리고 왜곡된 의사소통으로서의 폭력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참! 317호 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제 그들과 우리가 소통할 차례이다.

나비! 자유로운 영혼,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영화 버터플라이(Butterfly, 프랑스, 2002, 감독: 필립 뮐)에 대한 단상-

신은철(장계중 교사)



선생님,

길어오는 초록의 물결이 삶의 영광과 신비를 드러내는 유월입니다.

잘 지내시지요? 저는 요즘 나비의 아름다운 이미지에 빠져 지내고 있어요. 교무실 제 책상 유리 밑에도 예쁜 나비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정말이나고요? ^^*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보여 드릴게요.

선생님,

지난 독서교실에서 제가 나비의 이런 저런 이미지에 대해 역설하니까

“전 나비를 작고 여러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비에게 죽음(번데기)을 이겨낸 강인한 이미지가 있음을 새삼 느꼈어요.” 하셨습니다.

나비에 푹 빠져 있는 그런 제가 어찌 ‘버터플라이’란 영화를 제목만 보고서 덜컥 구입해 보지 않을 수 있었겠어요?

이 영화는 ‘이자벨’이란 나비를 찾아 나선 나비 수집가와 엄마 몰래 그를 따라 나선 소녀의 여행을 그린 로드 무비[여행을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거나, 진정한 자아 정체성을 정립하게 되는 과정을 제시하는 영화들을 로드무비라고 한다. 로드 무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여행 동안 벌어지는 예측 불허의 사건들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여러 사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주인공을 통해 관객 역시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지요.

영화의 제목이 나비이기도 하지만 이 영화 속 나비의 의미와 상징을 잘 읽어 내는 것이 이 영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라고 생각해요. 나비는 일반적으로 영혼, 부활과 재생, 영원한 생명 등을 상징하지요.

[나비의 상징성]

영혼, 영원한 생명을 상징. 날개로 하늘을 난다는 점에서 빛의 세계를 지향하는 아름다움

을 상징. 지상에 사는 애벌레에서 하늘에 사는 나비로 변신하므로 재생·부활을 상징.

우리나라에서는 예부터 나비를 기쁨·행복·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곤충으로 여겨 옴.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는 나비를 어떤 의미로 읽어야 할까요?

이 영화의 주인공은 고집스런 나비 수집가 노인 줄리앙과 외로운 꼬마 엘자입니다. 줄리앙은 ‘이자벨’이라는 아름다운 나비를 수집하기 위해 여행에 나섰고, 외로운 소녀 엘자는 줄리앙의 자동차에 허락 없이 몰래 숨어들으로써 고집쟁이 노인인 꼬마 엘자의 좌충우돌 나비 여행이 시작 되지요. 두 사람의 엉뚱하고 재기발랄한 대화로 인해 여행 길은 더욱 풍성해지고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영화 속 아름다운 자연과 나비, 줄리앙이 엘자에게 들려주는 최후 심판의 날에 대한 우화와 그림자놀이, 차츰 상대방을 이해해 가며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따뜻함 등에 빠져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과 꼭 같이 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그리고 저는 주인공이 왜 ‘노인(줄리앙)’과 ‘어린이(엘자)’ 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신화적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노인(‘인류의 지혜’와 ‘멘토·조력자’를 상징)과 어린이(인간의 원초적 순수성을 상징)의 조화, 즉 신·구이원성의 통일이 나비(영원한 생명, 자유로운 영혼, 기쁨과 행복)의 탄생을 가져온다는 의미로 읽어 보면 어떨런지요?

인류는 노인의 지혜를 귀담아 듣고, 어린이의 순수함을 간직하고 살아야 삶이 풍요로우리라는 깨달음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시시콜콜한 재미와 감동을 느끼게 해주는 요소들이 이 영화 속에는 많아요. 아이들과 같이 보시며 그 재미와 감동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환상의 나비 ‘이자벨’을 찾았나요? 글썄요, 그건 선생님이 영화를 직접 보고 알아내시길…… ^^*

선생님,

요즘 날씨는 무덥고, 시절은 참으로 하수상하지만 우리 힘내어 ‘나비 꿈’ 꾸어요.

가지가지
초록 나비 때
사부자기
여름 숲에 앉았네.

꽃을 향한
그대들
눈부신 비상(飛翔)

아,
이 황홀한
꿈이여

(줄시, 여름 숲2)

2009년 유월 어느 날

신은철 드림

[함께 생각해 보아요]

- 줄리앙은 왜 ‘이자벨’을 고집스럽게 수집하려 하나요?
- ‘엘자’는 왜 엄마 몰래 ‘줄리앙’을 따라 나섰나요?
- 나비의 상징적 의미를 알아보고, 이 영화에서 나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 로드 무비의 뜻을 알아보고, 이 영화를 로드 무비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유를 말해 봅시다.
- ‘엘자, 엘자의 엄마, 줄리앙’이 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그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지금, 바로 여기’라는 신화소(神話素)와 관련하여 ‘이자벨의 비밀’을 설명해 봅시다.

[같이 보면 좋아요-영화와 책]

〈영화〉1. 마리포사(스페인, 2000, 호세 루이스, 쿠에르다 감독): 1936년 스페인을 배경, 완벽한 나선형인 나비의 허에 대하여 설명하며 자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가르치는 노선생님과 한 소년의 성장에 관한 영화.

2. 빠빠용(미국, 1973, 샤프너 감독): 삶의 진정한 자유는 용기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명작.

〈책〉 1.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폴러스, 시공사: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책!!

2. 리버보이, 팀 보올러 지음, 다산책방: 죽음을 앞둔 할아버지와 손녀 제스의 마지막 여행을, 풍부하고 서정적인 묘사를 통해 그려낸다.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을 통과해야 하는 우리의 삶,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법에 대해 들려주는 성장소설.

3. 나비 따라 나선 아이 나비가 되고, 이가영 지음, 뜨인돌: 강원도 산골에 홀로세 생태학교를 세운 아버지 덕에, 시골 생활을 한 가영이가 8년간 자연과 곤충을 관찰한 기록과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담은 글을 모은 책.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 다채롭게 진행 - 독서문화교실, 농촌체험교실, 통일교실 등 열려

교육소의 계층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벌여온 새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2009년상반기에도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과 전북도교육청의 후원을 바탕으로 교육소외 계층에게 학습, 인지, 인성 등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지원 사업을 다채롭게 전개해 했다.

고른기회 배움터 사업을 통해 진행 교육소의 계층 지원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토요일 독서문화교실, 12개교 학교독서문화교실, 농촌체험교실, 통일교실, 교육정책세미나, 교사 연수 등이다.

어린이 독서교육 프로그램

교육소의 계층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 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였다. 초등독서교사모임 “읽고살고”이 본원 교육실에서 어린이 토요일독서문화교실을 지난 5월부터 매월 1회 진행하여 학부모와 학생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사진: 읽고살고 5월 어린이 주말 독서교실 - 5.9〉

또한 2009년에는 각급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 초등 학교독서문화교실을 운영하였다. 전주시신초, 전주아중초, 전주완산초, 전주삼천남초, 완주비봉초, 정읍도학초 등 초등학교 6개교에서 진행한 학교독서문화교실에는 총 18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책읽기와 문화활동을 진행하였다.

*초등 학교독서문화교실 장면



〈완주 비봉초등학교〉



〈전주 삼천남초등학교〉



〈전주 아중초등학교〉

청소년 독서교육 프로그램

중등독서교사모임 “책만세”가 진행하는 2009 청소년 독서문화교실이 본원 교육실에서 3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월 1회 열렸다. 3월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4월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5월 <파리대왕>, 6월 <왕따> 등의 책을 통해 자유, 양심, 인간의 본성, 관계 등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다양한 독후활동을 전개하였다.



중등 학교독서문화교실 진행

독서의 즐거움을 통한 책 읽는 문화 조성과 교육기회 균등 및 건전한 청소년 문화 형성을 위해 학교 단위에서 실시하는 중등 독서문화교실이 중학교 소양중학교, 구이중학교, 신일중학교, 곤지중학교, 완주중학교, 익산부송중학교 등 6개교에서 1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소양중학교 5월 독서교실〉



〈부송중학교 5월 독서교실〉

여름 방학 이용, 어린이/청소년 독서캠프 열려

상반기 토요독서교실 및 학교독서문화교실의 성과를 바탕으로 여름방학에도 어린이/청소년 독서캠프가 남원 학생수련원에서 열린다. 어린이 독서캠프는 8월 11일~13일(2박 3일), 청소년 독서캠프는 8월 10일~13일(3박 4일) 간 열릴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교육소외계층은 무료로 참여한다.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 후원자 모집

지금 이 기회입니다.
북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우리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은 매월 1구좌 5,000원씩의 후원금을 모아
평양 양각도 탁아소 어린이들에게 콩우유를 보내는
「북녘 어린이 콩우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5,000원이면 북측 어린이 1명에게 매일 1잔의 콩우유가 공급됩니다.
남측에서 기계와 콩우유 재료를 보내면 북측에서
매일 신선한 콩우유를 만들어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006년 2월에 시작하여 현재는 약 130구좌(매월 65만원) 정도가 매월 보내지고 있습니다.

신청서가 홈페이지(www.blue21.or.kr)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작성하시어 담당자(장재성, rudnf78@hanmail.net, 010-4655-9803)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변하기 쉬운 마음’ 이라는 꽃말을 가진 - 산수국 이야기 -

조 경 희 (전주인봉초 교사)

지구 온난화 탓인지 여름이 정말 일찍 찾아오고 무척이나 길어졌다. 불볕더위와 함께 찾아온 열대야로 잠 못 이루며 뒤척이는 날이 부쩍 많아진 요즘. 우렁찬 소리를 내며 하얗게 떨어지는 한줄기 시원한 폭포가 마냥 그리워진다. 아마도 질푸른 녹음 저편 어느 서늘한 숲 그늘 아래 지금쯤 산수국도 피었을 텐데……



깊고 높은 산 계곡 언저리 물가나 습한 곳에 연보랏빛으로 피어있는 산수국을 만나게 되면 마치 커다란 보물이라도 만난 듯 마음이 설렌다. 산수국은 아주 은근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수줍은 듯 연보라색으로 피어나면서도 꽃이 시원스러우며 화려하기도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깊고도 서늘한 이미지를 주는 여름꽃이다. 또한 이름그대로 산에서 피어나며 물을 좋아하는 이 꽃은 풀꽃이 아니라 나무꽃이다. 길이가 다 자라도 1m를 넘지 못한다. 산수국 꽃색은 하얀색, 분홍빛, 연보라색, 짙은 보라색 등 아주 다양하며 이러한 색깔의 변화는 아마도 흙의 성분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꽃말이 ‘변하기 쉬운 마음’ 인걸로 보아 꽃색깔의 변화를 보며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산수국의 잎은 마치 들깨잎같이 생겼고 이 잎은 서로 마주나며 핀다. 산수국의 꽃은 작은 꽃들이 가운데에 모여 피며 가장자리에는 마치 접시를 엮어 놓은 것처럼 빙 둘러 모인 헛꽃(무성화)이 핀다. 이 헛꽃의 역할이 매우 흥미롭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헛꽃을 진짜 꽃으로 흔히들 알고 있다. 산수국 꽃은 아주 자잘 자잘하고 그리 예쁘지도 않고 향기도 없어 벌과 나비에게 그리 주목 받지 못한다. 그래서 못 곤충을 유혹하여 꽃가루받이를 하기위한 전략으로 선택한 것이 꽃받침 잎을 발달시킨 무성화(헛꽃)이다. 이 가짜 꽃은 물론 암술과 수술이 없다. 그러나 누구나 이 가짜 꽃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알고 나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해 치열한 생을 사는 식물의 지혜에 감탄하고 생명의 경이로움에 다시 한 번 눈뜨게 될 것이다. 헛꽃잎은 4장 또는 5장으로 되어있는데 별로 눈에 안 띄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운데의 작은 진짜꽃을 위해 자신의 일생은 장식용, 유인용에 지나지 않더라도 온몸을 다해 곤충을 유혹한다. 그런데 더더욱 재미있는 사실은 곤충을 유인하여 꽃가루받이에 성공하고 난 후에는 헛꽃잎은 이제 더 이상 하늘 위를 향하지 않고 온몸을 돌려 버려 아래로 향한다. 또 꽃색도 점차 퇴화시켜 흐려져 간다. 자신의 역할을 완벽히 마치고 나면 더 이상 곤충들을 유혹하기 위해 아름다움을 발산하여 에너지를 낭비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몸을 180도 돌려 서서히 스러져가는 산수국 꽃잎을 보면 정말이지 처연한 심정이 든다. 자신은 비록 수정을 못하지만 진짜꽃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일생을 마감하는 산수국의 헛꽃잎에게서 새삼 ‘살신성인’이란 단어를 떠올린다면 너무 지나친 비약일까?

자생종 산수국과 비슷한 종류로 수국과 불두화가 있다. 그러나 수국과 불두화는 주로 관상용으로 재배하며 산수국과 달리 무성화로만 되어있다. 둘 다 둥근 공모양으로 한여름 소담스럽게 피어나는데 주로 절집에서 많이 키운다. 아마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숙명을 지닌 이 꽃마냥 수행정진에만 몰두하는 스님들의 처지가 비슷한 점 때문이 아닐까하고 혼자 그저 추측해본다.

기억은 우리의 최대 무기

이상훈(전주고 교사)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기억하라,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I.

조아세(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에서 만든 달력이 있다. 조선일보가 일제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일왕부부를 1면에 커다랗게 장식해 놓고 일본국기가 휘날리는 조선일보, ‘인간 전두환’이란 대문짝만한 기사로 전두환을 열렬히 찬양하는 조선일보, 1980년 5월 광주 민중항쟁에 대해 사설을 통하여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군에 대해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고 찬양했던 조선일보, 전투기 1대 10만원 할 때 일제에 100만원 받고 합의 폐간한 조선일보, 축구장 2배 크기의 조선일보 사주 저택 등이 그 모습이다. 또한 달력에는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보는 달력에 아름다운 사진을 넣지 않고 흉물스런 친일 반민족 조선일보 사진을 넣은 것은, 우리가 행복을 위해 하는 많은 힘든 일들이 언론과 역사가 바로서지 않고는 무의미한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라고 적고 있다.

실제 우리사회의 많은 굴절은 진정한 의미의 역사 청산의 미흡함과 언론이 바로 서지 못함에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생하게 현재에 와서도 목격하고 있다. 제 4권력에 비유되는 언론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독재권력 만큼 국민들에게 커다란 상처를 준다.

조아세 달력에 실려 있는 프랑스의 비평가·사상가인 폴 발레리(Jules Valrery)의 말이 압권이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나는 사는 대로 생각할 것이다. 기억하라,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처음 교직을 내딛고 생각한대로 생활하고 있는가? 안주 삼아 승진을 쟁하면서 언제가부터 그 대열에 합류한 것은 아닌지? 처음 교육운동에 뛰어들어 교직까지 포기하면서 생활 했는데, 이제는 관료화된 생각과 생활을 하지는 않는지? 그래 나도 한때는 교육운동도 하고 학생을 위하여 생활했다고 어디선가에서 항변은 하지 않았는지? 이런 의문에 폴 발레리의 “용기를 내어서 그대가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는 말을 되씹고 되씹으면 해답이 나온다.

II.

벌써 오래전이다. 노무현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을 이어 대통령에 당선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내 아내는 좋아했었다. 노사모 회원에 가입하고 후원금도 냈다. 인터넷에 들어가 그 활동상황도 살폈다. 제법 열심히 활동하는 노사모 회원을 옆에서 볼 수 있었다. 다른 후보를 지지하는 시아버지 앞에 노무현을 이야기한 아내였다. 또 노무현 후보와 정몽준 후보가 단일후보를 여론조사로 결정하기로 한 날이 공공로게도 장모 생신날이라 혹시라도 집으로 올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생각으로 우리는 1개월간 착신 서비스를 했다. 이러했으니 그 날이 얼마나 기뻐졌는가? 조아세 달력을 수십 부씩 구입하여 지역사회에 보급한 사람도 아내였다.

그런 아내에게 지난 1년 6개월은 잔인한 날들이었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어놓은 권력기관

의 자율화,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 언론 개혁을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가는 날들이었다. 역사의 후퇴, 민주주의 위기, 하나하나의 공권력이 파시즘 같은 독재 정치로 변질된 오늘이 참으로 가슴 아픈 날들이었다. 그러던 차에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는 가슴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다.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내는 마시지 못하던 술을 마셨던 그날 밤…….

다음날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전주 오거리 분향소를 찾았다.

Ⅲ.

우리엔겐 길이 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 밖에 없다. 지난 한겨레21(2009.6.15. 제 764호)표지는 MB의 투쟁이 장식하고 있다. 머리띠를 메고 한손을 불끈 쥔 MB의 모습이다. 구호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인용했다. “대중의 이해력은 아주 낮으며, 잊어버리는 능력은 아주 엄청나다” 독재정권은 이것을 노린다. MB의 역사 학습 효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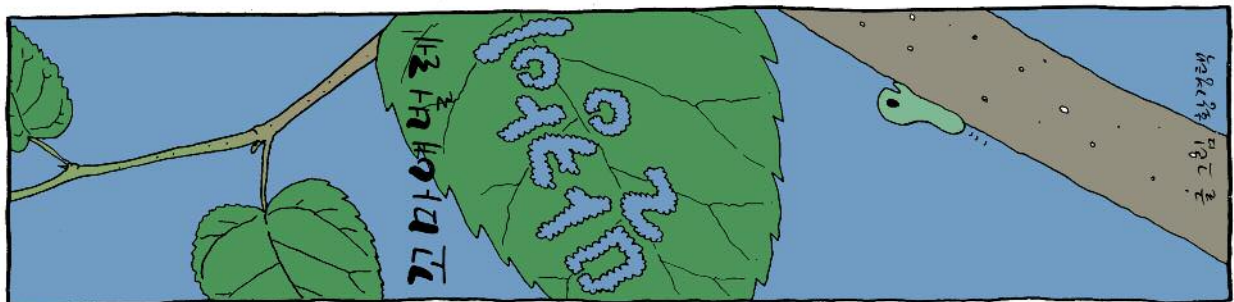
그러나 독재자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말이 있다. 패기 있는 《십자군 이야기》작가 김태권은 말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은 대중의 기억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기억을 조작하고 싶어 한다. 글 쓰는 사람을 매수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비싼 돈을 들여 여론을 호도하며, 심지어 군대를 풀어 약한 자들의 입을 틀어막는다. 폭력이 횡행하는 동안, 대부분의 사람은 몸을 사리고 있다. 폭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기억의 불씨가 살아있는 한, 숨죽여 있던 사람들은 현재와 미래의 불의를 좌시하지 않는다. 기회가 올 때 마다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일어서서 싸울 것이다. 기억이 있는 한, 폭력은 아직 승리한 것이 아니다. 기억은, 살아남는다는 것 그 자체와 더불어, 폭력이 빼앗아 갈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무기이다.”

우리는 지금 현재, 현실의 모습을 기억해야 하리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보복수사를 통해 죽음으로 내모는 현실, ‘대운하 반대’, ‘미디어법 반대’, ‘언론 자유’ 등 수많은 국민들의 외침을 짓밟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현실, 작년 촛불집회에 유모차를 끌고 참여한 44명의 주부에게 1년이 지난 지금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출석요구를 하는 현실, 언론사 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며 언론 장악을 시도하는 현실, 수십년전 사라진 대한니우스를 다시 상영하는 현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초등학교까지 문제풀이 학습에 매달리게 하는 일제고사의 실시, 그렇지 않아도 입시경쟁으로 힘든 청소년들에게 자율형사립고 100개를 외치며 무한 경쟁을 강요하는 모습, 학교별 책임을 지운다며 수능성적과 학교성적을 공개하는 모습, 국민과 소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외치는, 너무도 당연한 국민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교사가 했다는 이유로 해직시키고 징계하는 모습, 옆 친구에 대한 따뜻한 돌아봄없이 무한경쟁으로 무한질주하는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모습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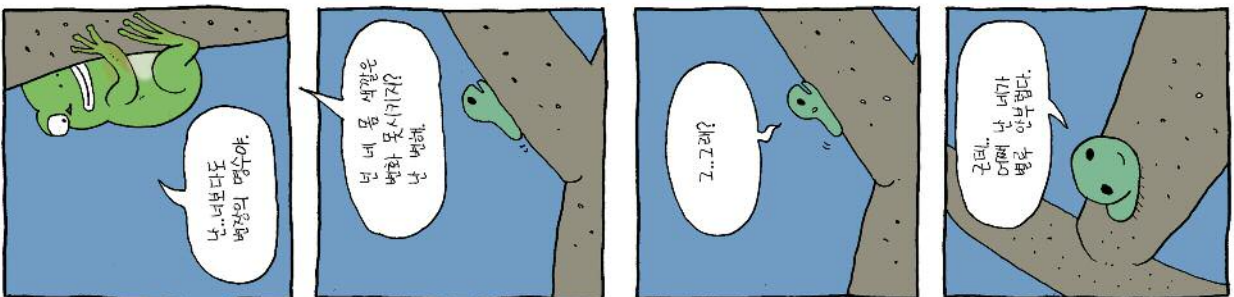
우리엔겐 길이 있다. 오랫동안 기억하는 것이다. 그것 밖에 없다. 지난 한겨레21(2009.6.15. 제 764호)표지는 MB의 투쟁이 장식하고 있다. 머리띠를 메고 한손을 불끈 쥔 MB의 모습이다. 구호는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인용했다. “대중의 이해력은 아주 낮으며, 잊어버리는 능력은 아주 엄청나다” 독재정권은 이것을 노린다. MB의 역사 학습 효과인가?

누려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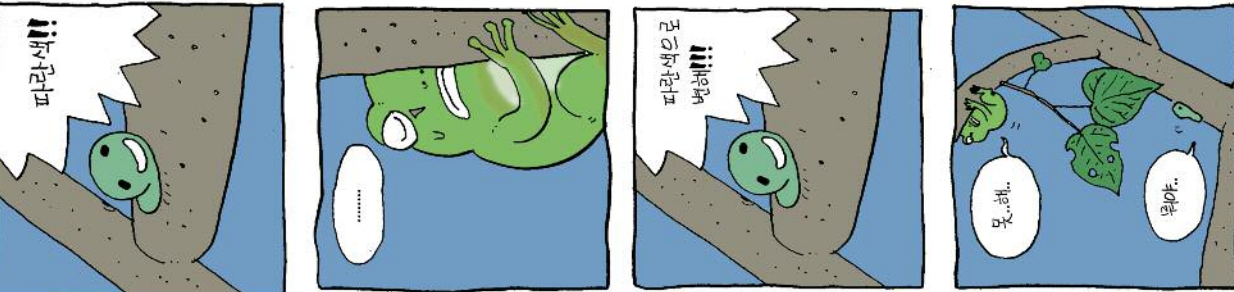


클그림/황경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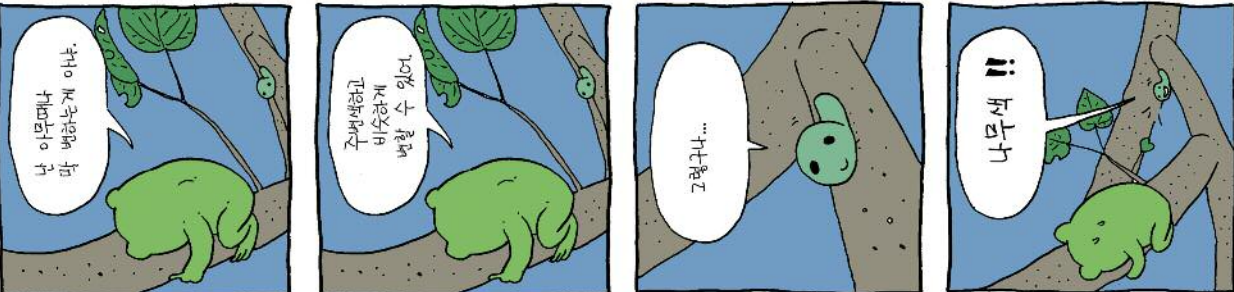
누려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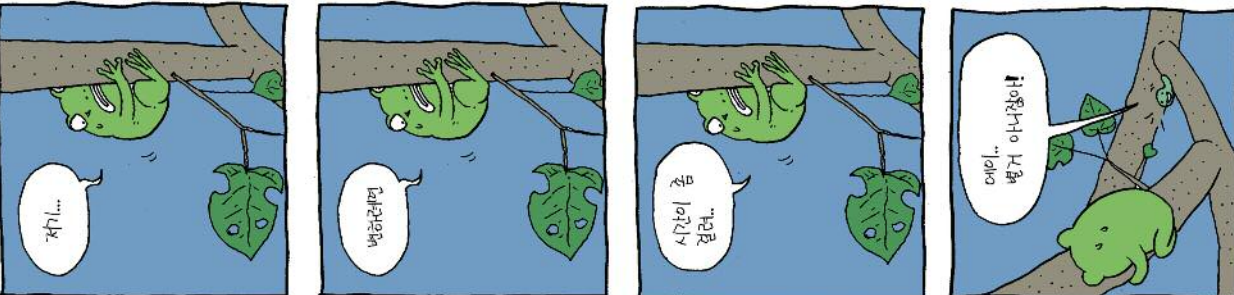
누려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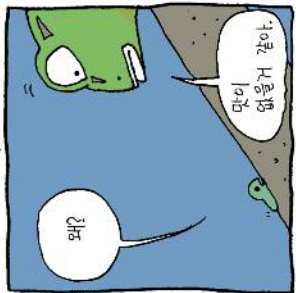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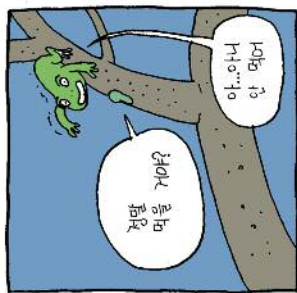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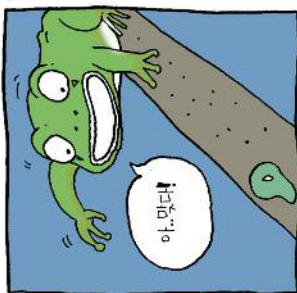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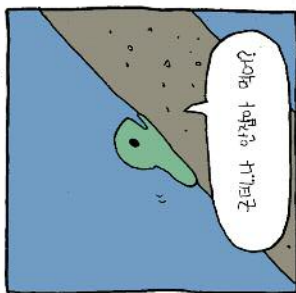
누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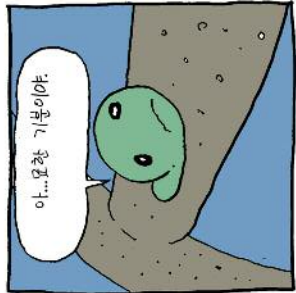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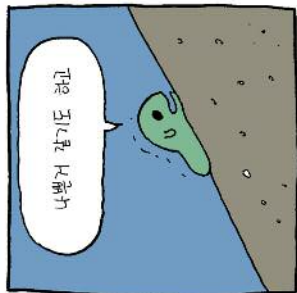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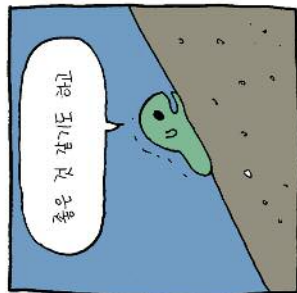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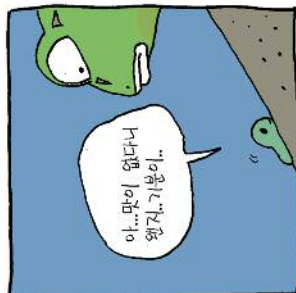
누려5



대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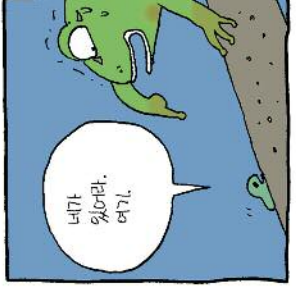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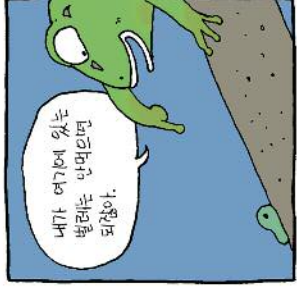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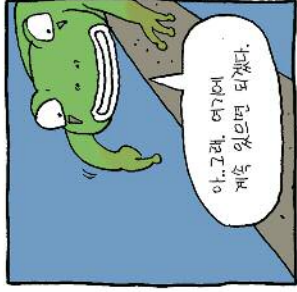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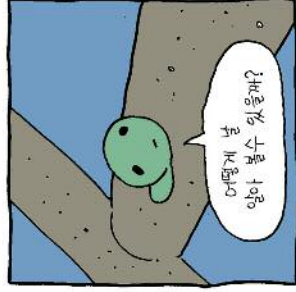
대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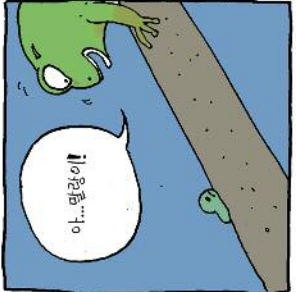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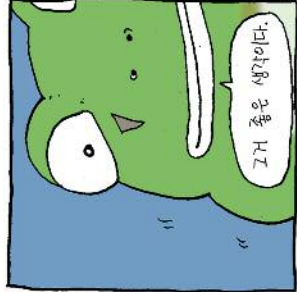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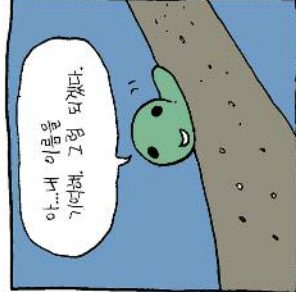
대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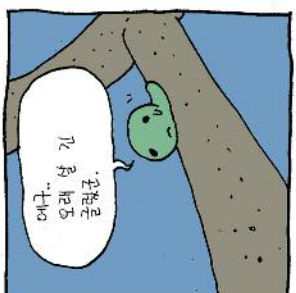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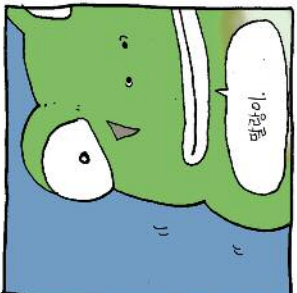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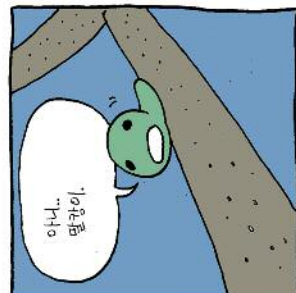
대4



대5



대6



당분간 말랑이의 다음 이야기는 기다려주세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새 가족이 되신 신입회원을 환영합니다.

고갑규(전북사대부고)
김순영(전주공고)
김완수(전주공고)
김진만(전주인후초)
김호훈(남원교육청)
나인숙(김제교육청)
박인숙(군산서흥중)
박정미(정읍고부중)
백선화(장수중)
안정임(전북기계공고)
오준호(이일여고)
이덕금(정읍교육청)
이영화(부안보안중)
전성심(전주공고)
전정욱(학부모)
천호성(전주교대)
최성자(전주공고)
최수진(전주공고)
최윤숙(전주인봉초)

* 소식

- 자문위원인 안도현 교수님이 노무현 전대통령 서울 노제에서 조시를 낭송 하셨습니다. 전 국민과 문화원 회원님들의 추모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 중등독서교사모임인 책만세에서 활동하시고, 독서캠프와 독서교실에 열심히 참여하신 최제윤 선생님(온고을중)께서 드디어 7월 12일 결혼하십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좋은일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후원 계좌
전북은행 543-13-0310862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약정해주신 월 후원금은 약정기일(2일/23일)에 출금되며, 혹 통장 잔고부족 및 기타사유로 출금이 안된 경우 다음 월에 합산하여 출금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후원내역 중 궁금하신 내용은 사무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905-0218



꿈이 움트는 나무
문화가 꽃피는 나무
희망이 영그는 나무이다.

자연(해·달)과 문화와 어른·아이가
어우러진 무지개 빛깔의 나무로 형상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CI 의미

곧고 풍성한 나무는

- 청소년(어린이)의 꿈과 희망
- 바른 교육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무지개 빛깔의 다채로운 동그라미가 서로 잇닿은 모습은

- '청소년(어린이)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네트워크
-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주체(지역주민, 교사, 청소년)의 소통과 화합을 의미한다.

꿈·문·희 나무는

사단법인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이

추구하는 가치와 이를 실현하고 확대하기 위한
의지의 표상이다.

함께 열어가는 참교육 통일 세상 회원 가입 원서

이름	(남,여)	생년월일	
학교명		담당교과	
학교주소		학교전화	
손전화		집전화	
E-mail			
자택주소			

*관심분야 (2개 √표)

- | | | |
|---------------------------------|---------------------------------------|--------------------------------------|
| ☐ 청소년 정책 | ☐ 청소년 인권·복지 | ☐ 청소년 문화·동아리 |
| ☐ 독서교육 | ☐ 초등교육() 통일·역사 | ☐ 지역교육·교육자치 |
| ☐ 환경 | ☐ 학급운영 | ☐ 진로·상담() 성교육 |
| ☐ 학부모 교육 | ☐ 인터넷·정보 | ☐ 학교운영위원회 |
| ☐ 기타 | | |

※ 홈페이지에(www.blue21.or.kr)서 간편하게 회원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팩스(063-227-0650)



제9회 2009 여름 어린이 독서캠프 안내

2009.8.11(화) - 8.13(목) 2박 3일

- ◆ 주관 :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 ◆ 주최 : 초등책읽기교육연구회 원/교/살/고
- ◆ 일정 : 2009년 8월 11일(화) - 8월 13일(목) 2박 3일
- ◆ 장소 : 전북학생교육원
(전북 남원시 운봉읍 공안리 산 45 ☎ 063-620-7686)
- ◆ 참가대상 : 초등학교 5~6학년 100명
- ◆ 캠프 도서 : ①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유은실/창비)
② 마당을 나온 암탉(황선미/사계절)
③ 존 아저씨의 꿈의 목록(존 고다드/글담)
- ◆ 참가비 : 일반 학생 8만원, 저소득층 40명 전액 무료
(담임교사 추천서 첨부)
- ◆ 참가 신청 : 7월 15일까지 선착순 접수
- ◆ 출발일시 및 장소 : 8월 11일 (화) 오전 9시
전북교육문화회관 공연장 앞
- ◆ 접수 : 전자우편 jb-blue21@hanmail.net
팩스 063-227-0650
- ◆ 문의 : ☎ 063-905-0218 (사)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신청서 및 연락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에
탑재됩니다.(www.blue21.or.kr)

2009 제11회 여름 청소년 독서캠프

2009.8.10(월) - 8.13(목) 3박 4일

- ◆ 일정 : 2009년 8월 10일(월) ~ 8월 13일(목) 3박 4일
- ◆ 장소 : 전북학생교육원 (전북 남원군 운봉면 소재)
(☎ 626-7686)
- ◆ 캠프도서 : 1. 우리곁에서 만나는 동서양 신화
(이경덕 지음/사계절)
2.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유은실 지음/창비)
- ◆ 작가와의 만남 : 나의 린드그렌 선생님의 작가 유은실 님
- ◆ 참가대상 : 전라북도 중학교 중학생 (80명)
- ◆ 참가비 : 저소득층 무료(40명), 일반학생 9만원
- ◆ 참가제출 서류 : 참가 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저소득층만 해당)
- ◆ 출발일시 및 장소 : 8.10(월) 오전 9:00
▶ 전주-전북학생문화회관(도교육청) 옆 광장
- ◆ 접수 : 전자우편 jb-blue21@hanmail.net
팩스 063-227-0650
- ◆ 기타 : 독서캠프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 나
눌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교사, 학부모, 대학생, 일
반인 등 누구나 가능합니다.